

사랑하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샬롬,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캄보디아의 정지웅/은영 선교사입니다. 지난 10 월 수련회와, 지난 주 감뽕잠 단기선교 소식을 감사함으로 동역자님께 나눠드립니다.

Retreat & Baptism ^{Oct 18-19}

출발

10 월 18 일, 새벽 5 시 설레이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이들과 시작한 성경공부, 예배, 교회, 그리고 이제 첫 수련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애당초 고등학생은 가기 어렵다 여겼지만, 성인이라 여겼던 청년들 가운데서도, 부모님의 허락을 못 얻어 가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외국인을 따라 지방으로 가서 자고 온다는 것이니, 부모님의 반대가 이해가 전혀 안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자매 ^{Vida} 는 새벽에 부모님을 모시고 교회로 와서, 저희를 만나게 하고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승합차 한 대와 저희 차 두대로 출발하였습니다.



바다

앞서 가는 차를 바라보며 저희 마음에 감사를 채워주셨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때는 이 땅에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 복음을 전할까 참으로 막막했었는데, 지금 저 앞 차에 사람이 가득차 있구나 생각하니,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5 시간을 달리며 산넘고 강건너, 수련회 장소가 있는 해변도시 감뽕싸움 ^{Sihanoukville} 에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간단히 점심을 먹은 후,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끝없는 바다를 보니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쏘컨(사진)이란 자매가 한마디 하였습니다. '이야.. 정말 크다!'. 알고보니, 태어나서 바다를 처음 본 것이었습니다. 그순간, 이 자매 한 명을 위해서라도 이번 수련회는 정말 잘 왔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넓은 바닷가에서 어린이처럼 놀았습니다.



본 쓰러무 떡 បុណ្យប្រមូលផ្គុំគ្នា 침례식/세례식의 캄보디아 명칭

오후 4 시쯤 되어, 하늘에서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곳에서 어찌면 한 영혼에 가장 소중한 순간으로 기억될 시간 ^{Baptism} 을 준비하였습니다. 둘러모여 그 의미와 기쁨을 나누고, 사람이 복적이든 바닷물로 한 사람씩 들어갔습니다. 집례를 하는 선교사 마음에 ‘하나님, 지금 이순간을 위해, 저희를 캄보디아로 부르셨지요. 이 자녀들을 부르시는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저희를 끼워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나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예배와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양하고 말씀듣고, 또 돌아가며 간증하며 어느덧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하고, 예배드리고,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방문하고, 점심 식사후 프놈펜으로 출발하여 돌아왔습니다.

4th Kampong Cham Mission ^{Dec 6-7}

수련회 이후 곧이어 단기선교 준비를 하였습니다. 팀을 모으고, 팀장을 세워 프로그램을 짜고, 학용품이나 옷가지등을 수거하고, 또 교회 티셔츠를 만들어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쌀 기금 펀드레이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두달이 지나, 지난 토요일(12.6) 새벽에 단기선교를 출발하였습니다. 수련회에 비해 목적지 ^{감병짬 Kampong Cham}까지는 2 시간 반 거리이기에 토요일 오전에 도착하여 주일 저녁까지 있다가 밤에 프놈펜으로 오게 되는 꼭 찬 만이들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8 명의 팀원들과 함께 오가는 차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게임하고, 얘기하며 감병짬에 도착했습니다. 팀원중에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 오는 이도 있고, 3 년째 오는 이, 또 찌보완과 빠싸이는 4 년째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아원 아이들도 저희의 얼굴을 기억하고 다가와 반갑게 마중합니다. 또 째리(사진)와 몇몇은 처음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새 형제자매처럼 어울리고 친해져버립니다. 저희같은 외국이라면 낯설고 말도 안통하고 애를 써도 떠나는 순간까지 다름의 거리감이 있는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바로 현지인만이 가능한 가장 탁월함입니다.

정서

팀원들은 준비한 순서들을 진행했습니다. 게임과 미술, 또 운동, 예배 간증, 스킷 드라마, 그외 서로 어울리며 멘토링하기, 매 식사 주방 도우미 등, 모두 자연스럽게 즐겁게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게임을 보면서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무줄을 들고 높낮이를 달리 잡고 서 있으면, 그 밑으로 빨리 지나가기라든가, 팀을 나눠 단체로 가위 바위 보를 하는 것 따위였습니다. 준비하는 것을 바라보며 솔직히 처음에는 ‘시골 아이들에게 좀 더 재밌고 새로운 것을 해주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아이들은 건물이 무너지도록 소리치르며 너무도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이것이 정서구나. 딱 맞았구나’ 싶었습니다.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Skit Drama

매년 단기팀은 스킷을 준비해 아이들앞에서 공연해 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선교사가 스토리를 만들어 연습시켰다가, 올해는 팀원 중 한명에게 맡겨 스스로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첫 크리스마스’ ^{First Christmas} 라는 제목아래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만들었습니다. 스킷을 통해서도 또 하나의 배움을 얻었습니다. 작년까지의 저희가 만들어 연습시킨 것은 뚜렷한 기승전결로 내용 전달이 명확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학생들이 만든 것은 영성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스킷 준비 과정을 보면서, 한가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쓴 것은 그 쓰여진 대사 이상도 이하도 나오지 못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연습을 거듭하면서, 대사가 더 자유롭고 풍성해지며, 그 흐름이 완성되어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배운 참 좋은 성장의 경험이었습니다.



Testimony ‘형이 말이야’



주일 예배에서, 우덤 ^{Oudom(사진)}과 쓰레이멧 ^{Sreymich} 이 예배에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우덤은 목사님 아들이고, 쓰레이멧은 어려서부터 기독교 공동체에서 자란 참 귀한 이들입니다. 이들의 간증에는 한가지 공통점이요, 또 저희와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호칭하는 데 있어, 봉 ^(형 혹은 언니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이 말이야, 언니는 말이야’라는 것입니다. 보통 저희 같은 선교사가 말씀을 전할때는 선생님 혹은 목사님이란 호칭을 쓰는 것과 달리, 얼마나 가깝게 들렸을까요. 잠시 생각해보았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나는 너희들의 친구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우뚝과 쓰러이밧의 간증을 듣는 어린이 가운데, 또다른 이들 앞에 서서 '형이 말이야'하고 간증하게 될 모습을 행복히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연스러움

주일 오후에는 다시 고아원에서 차로 30 분정도 시골로 들어가 고무농장으로 들어가 그곳의 아이들과 예배드렸습니다. 오가는 길 똑똑이(오토바이 리어커)가 다리를 넘다가 멈추어, 모두가 밀고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고(사진), 먼지 마시고, 중간에 길거리 옥수수 사먹고, 비포장길을 달리기도 했습니다. 저와 같은 외국 선교사에게는 이러한 것이 고생 혹은 추억꺼리로 여겨질 것 같은데, 저희 학생들에게는 일상이기에, 그저 너무도 편안하고 즐거워보였습니다.



자식



고아원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은 후, 하나 하나 너무 예쁜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모아온 선물들 (학용품, 옷, 쌀^{500kg})을 감사히 드리고, 내년을 약속하고, 밤 늦게 프놈펜으로 모두 안전하게 귀가하였습니다. 돌아오는 차에서, 이번에 만난 아이들이 참 예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말 예쁜 어린이들보다, 어른으로 다 자란 저희 팀원들이 제 눈에는 더 예쁘고 사랑스럽기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쁜 아이와, 자식의 차이입니다. 비록 소유할 수 없는 조건으로 주신 자식이긴하지만..☺

사랑하는 동역자님, 수련회와 단기선교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신 모든 이들의 생애 잊지 못할 소중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번달 마지막 주일(28 일)에 있을 크리스마스 예배와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28 일 크리스마스예배와 파티에 예수님 모르는 이들을 많이 보내주시어 주님 만나길
2. 정은영 선교사가 귀와 목에 염증으로 오랫동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료해주시길
3. 온유, 주언이가 지혜롭고 총명히 자라며, 성령님을 어려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2014 년 12 월 13 일
정지웅/은영, 온유, 주언 올림



Epilogue

달려갈 길을 마치고

수련회를 오가며 큰 기도제목 중 하나가 오래된 제 차였습니다. 평소 종종 고장나고 멈춰도 프놈펜 안에서는 끌고가서 고칠 수 있었지만, 시골 지방도로에서 고장나면 수련회에 큰 지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국 잘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제자리에 돌아온 차가 얼마나 멋있던지! ☺

안심

이번 단기선교에 처음 왔던 다엔^{Mut Den} 이란 자매는, 사정상 밤에 혼자 버스를 타고 깜빡빡으로 왔어야 했습니다. 버스가 도착될 무렵 연락을 받고, 밤 9 시경 시내의 주유소 앞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환히 얼굴로 제게 건넨 첫 마디, '혼자 너무 무서웠는데, 목사님을 보고는 너무 안심이 되었어요'. (잘 왔어. 어서 올라타)



- End -